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Parental Marital Conflict,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홍주영*
부교수 도현심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Hong, Joo-Young
Associate Professor: Doh, Hyun-S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marital conflict,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attachment to parents was also explo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s. Two hundred eighty four 8th grad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answ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al marital conflict, attachment to parents, quality of their friendship, and attachment to peer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who perceived a higher level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reported less positive feelings and more negative feelings toward their friends. They also reported lower peer attachment, and tended to perceive their friendship functions negatively. Second, adolescents who showed stronger attachment to their parents reported more positive feelings and less negative feelings toward their friends. They reported higher peer attachment, and perceived friendship functions positively. Third, adolescents who perceived a higher level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showed weaker attachment to their parents. Finally, attachment to fathers and mothers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parental marital conflict had an indirect effect on peer relationships. The results suggest that attachment to fathers and mothers that resulted from parental marital conflic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rather than the existence of the parental marital conflict itself.

▲ 주요어(Key Words): 부부갈등(parental marital conflict), 부모에 대한 애착(attachment to parents),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 우정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 또래애착(peer attachment)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발달과업을 잘 수행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발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학령전기의 발달 동안 중요해지기 시작하며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청소년기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대신 동년배의 또래와 보내는 데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이에 따라 또래관계의 특성은 변화하게 되고, 또래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많은 영향

* 주저자: 홍주영(E-mail: jurria1021@hanmail.net)

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rown, 1990; Collins, 1988; Hill, 1980).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은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에게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며(Hartup, 1993),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래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또래로부터 지원과 이해 및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그들은 또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체감과 자아개념,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게 되며,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친구를 필요로 하며 친구가 많고 기능적일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유능감을 느끼게 되고 만족도가 높아진다(서주현·유안진, 2001). 특히, 상호적이고 이원적인 관계인 우정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는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과 안정감을 느끼고, 호혜성이 높아지며, 갈등이 낮아진다. 또한 우정관계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호적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Laird, Pettit, Dodge, & Bates, 1999), 이는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우정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정관계 외에도 또래애착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을 손꼽듯이, 또래애착은 또래관계를 나타낸다. 또래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유사하게 또래관계에서 아동이 또래에 대해 형성하는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일방적인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또래와의 상호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다(Ainsworth, 1989).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가 부모보다 더 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게 되고, 또래를 일상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친밀감의 대상으로, 부모를 장기적인 계획과 도덕적이거나 사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친밀감의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또래를 동일하게 주요애착 대상으로 생각하여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Freeman & Brown, 2000). 즉, 또래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Ainsworth, 1989; Bowlby, 1969). 이와 같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우정관계와 또래애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최근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또래괴롭힘 현상, 청소년의 폭력, 그리고 비행의 문제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또래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

년의 또래관계가 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가족환경으로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사회적응 능력을 배우게 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래와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간다(Rowe, 1984). 그러므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가족환경과 관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별거가정이나 이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국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이 되는 부부갈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행동장애, 불안, 공격성 등을 포함한 아동의 부적응문제(Emery, 1982, 1988; Grych & Fincham, 1990), 낮은 자아존중감(Slater & Haber, 1984), 우울(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 Peterson & Zill, 1986) 등과 같이 내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현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발달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성영혜, 1993).

이처럼 지금까지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Grych & Fincham, 1990), 몇몇 안 되는 연구들을 보면, 부부갈등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부부관계는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고(Gottman & Katz, 1989), 부부갈등의 정도는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게 하며(Emery & O'Leary, 1984; 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가정의 붕괴나 불화가 또래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유능성이나 성공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는 연구결과(Ladd, 1992)에서 보듯이 부부갈등은 자녀의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자녀의 부정적 간접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분노 상황에 노출된 후에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Cummings, Iannitti, & Zahn-Waxler, 1985). 자녀는 부모가 서로의 대립을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하여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Davis & Cumming, 1994). 또한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의 경우, 양육방식에 있어서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 또래간 상호작용이 성숙되지 못할 수도 있다(Parke & Ladd, 1992). 이와 유사하게 갈등이 있는 부모는 무반응적이고 허용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은 자녀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분노, 불순응적 행동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덜 성숙된 놀이형태와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과도 관련된다(Parke & Ladd, 1992).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일치한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의 대부분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국내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편의 연구들(류승희, 2001; 이향선, 1999)을 제외하고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갈등 외에 부모-자녀관계는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부모-자녀관계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표적으로 연구되어온 분야로서, 자녀의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Bowlby(1969, 1973)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은 영아기의 자녀와 양육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양육자와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양육자는 그들의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기대, 대인관계의 지침이나 각본이 되는 내적 작업모형을 빌달시키게 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타인을 그들의 요구에 반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내적 작업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애착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되어 탐색하거나 놀이를 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거나 또래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도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된다(Kerns, 1996; Sroufe, 1988). 반면,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자신을 중요하지 않고 무능하며, 타인을 자신의 요구에 거부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내적 작업모형을 형성하여, 탐색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Ainsworth, Behar, Wates, & Wall, 1978). 즉, 부모-자녀간 형성된 애착의 유형에 따라 자녀가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과 또래와의 유능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조화롭고 협조적으로 행동하여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반면에, 불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애착 대상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감을 발달시켜 이것을 후에 또래관계에 적용하게 되고(Putallaz & Heflin, 1990),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거부당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Goldberg, 1991). 또한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함을 보였으며(Elicker, Englund, & Sroufe, 1992; Youngblade & Belsky, 1993), 부모와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지각한 전청소년기(preadolescence)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ern, Klepal, & Cole, 1996). Elicker와 동료들(199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여 애착과 우정관계의 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청소년은 우정관계에 있어서 덜 조화롭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에 대한 불안정한 애착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착이 전생애적으로 유지되고 형성되며, 청소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영아기와 유아기의 애착과는 달리 애착대상에 대한 신체적인 접근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되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Kerns et al., 1996),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애착과 또래관계에 대해 다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Kerns et al., 1996; LaFreniere & Sroufe, 1985),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래관계와 관련시켜 어머니의 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를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가 있지만 (Suess, Grossmann, & Sroufe, 1992),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유아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부갈등은 부모에 대한 애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먼저, 양자간의 관계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간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부모관계가 만족스러울 때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반면(Patterson, Littman & Bricker, 1982), 부부관계가 긴장되어 있을 때는 부모-자녀관계가 덜 가까워지며 갈등이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Brody, Pillegrini, & Sigel, 1986; Goldberg & Easterbrooks, 1984; Jouriles, Pfiffner, & O'Leary, 1988; Peterson & Zill, 198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 하지만(Jones-Leonard, 1985),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Ruehlman, West, & Pasahow, 1985; Wolfe, 1985),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Lobiz, 1974). 이는 부부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해 좀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하여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지각을 통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정화용, 2000), 부모와 관련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도

높게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정소영, 2000).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 즉, 부모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Goldberg와 Easterbrooks(1984)는 결혼 적응과 영아-부모 간 애착안정성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부부가 낮은 결혼 적응을 보이는 가정의 경우, 부부가 높은 결혼 적응을 보이는 가정보다 아버지와 영아간, 그리고 어머니와 영아간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영아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부관계의 질은 애착과 관련이 있어 부부간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부모-영아간에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고, 결혼에 대한 적응이 낮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기 쉽다. Belsky(1984)는 생후 1년에 부모에게 불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영아의 어머니는 생후 1년에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영아의 어머니보다 부부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이나 감정이 덜 하고 임신부터 초기 1년까지의 부부관계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와 영아의 애착간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부부갈등이 부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청소년기에도 애착은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관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한편, 부부갈등은 자녀의 정서나 행동의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갈등과 자녀의 적응간의 관계는 간접적이며,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였다(Tschann, Johnston, Kline, & Wallerstein, 1989). 또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직접 관련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야기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Farber & Long, 1991;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Vincent, Harris, & Plog, 1991). 이와 유사하게 부부관계는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Feldman, Nash, & Aschenbrenner, 1983; Pedersen 1975; Pedersen, Anderson, & Cain, 1977). 즉, 부모간의 갈등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Farber et al., 1990; Farber & Long, 1991; Vincent et al., 19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밀접한 관계를 비롯하여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기초할 때, 부부갈등은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 변인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청소년의 지각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Grych와 Fincham(1990)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맥락적 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을 제시했는데, 아동이 부모의 갈등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대처하느냐가 정서적·행동적 반응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고, 많은 연구자들은 부부갈등의 영향력에 있어서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각성이나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Crockenberg & Forgays, 1996; Davies & Cummings, 1994). 이는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부모의 갈등을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그리고 부부갈등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부부갈등은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의 거주 환경이 비슷한 2개 구에 위치한 중학교 10학급(학교별 5학급)의 2학년에 재학중인 284명의 남녀 학생들(남: 138명, 여: 146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중학교 2학년생으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의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Buhrmester, 1990; Sullivan, 1953)에 근거하였다.

2. 조사도구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Grych와 동료들(1992)이 제작한 부-모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변안하여 측정하였다. 본래 CPIC는 빈도(Frequency), 강도(Intency), 해결(Resolution), 내용(Content),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 대처효율성(Coping Efficacy), 자기비난(Self-Blame), 삼각관계(Triangulation), 안정성(Stability)의 9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빈도 및 강도에 초점을 두어 이 두 가지 요인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편($r=.75$, $p < .001$)으로 나타나, 분석 시 이 두 요인을 합산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부부갈등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2)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동료들(1991)이 청년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척도 개정본 (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변안하여 측정하였다. IPPA-R은 IPPA와는 달리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분리하여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IPPA-R은 총 25개의 문항이나,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낮추는 3문항이 제외되어 22문항이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래 IPPA-R은 Likert식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 둘 다 .93로 나타났다.

3) 우정관계의 질

우정관계의 질은 이은해와 고윤주(1999)의 척도를 청소년용으로 수정한 정선혜(2000)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먼저 가장 친한 동성 친구의 이름을 적게 한 다음, 그 친구에 대해 3가지 측면, 즉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그리고 친구의 기능에 대해 Likert 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친구의 기능은 동료관계, 도움, 친밀,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애정을 측정하는 4문항과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4문항(총 8문항)으로,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친구와의 갈등, 친구에 대한 상대적인 무능감, 관계의 소원함과 관련된 정서상태를 측정하는 총 18문항으로 되어 있다. 친구의 기능은 6가지 하위영역에 대해 각각 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외하여 총 29문항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시 이러한 하위영역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합산하였다.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를 살펴보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94,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92, 친구의 기능은 .97이었다.

4) 또래애착

또래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동료들(1991)의 IPPA-R 가운데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를 변안하여 측정하였다. 또래애착에 관한 문항은 총 25개의 문항이나,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이 제외되어 24문항이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래 IPPA-R는 Likert식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본 연구는 2002년 3월에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장의 동의하에 2군데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담임교사에 의해 배부·회수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1주일 후에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2개 학교 10학급에 배부된 321부의 질문지 가운데 304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20부)를 제외하고 총 284사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수들간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친구의 기능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각각 $r=-.25$, $p < .001$ 과 $r=-.17$, $p < .05$),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낮아지고, 친구가 사회·정서적 또는 수단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를 의미하는 친구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부갈등은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30$, $p < .001$),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은 또래애착과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r=-.28$, $p < .001$),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1>).

<표 1>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상관관계

	우정관계의 질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	친구의 기능	또래애착
부부갈등	-.25***	.30***	-.17*	-.28***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r=.26$ 과 $.35$, $p < .001$),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r=-.18$, $p < .0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친구의 기능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r=.28$ 과 $.32$, $p < .001$),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친구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또래애착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6$ 과 $.40$, $p < .001$).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애착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2>).

3.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관계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와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r=-.51$ 과 $-.48$, $p < .001$).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상관관계

부모에 대한 애착	우정관계의 질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	친구의 기능	또래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26***	-.09	.28***	.36***
어머니에 대한 애착	.35***	-.18*	.32***	.40***

** $p < .01$ *** $p < .001$

4.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매개적 역할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매개적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매개변인이 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부부갈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관계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는 7가지이었으며, 이러한 변인들에 대해 매개변인의 역할을 확인해 보았다. 즉, 부부갈등(독립변인)이 부모에 대한 애착(매개변인)을 통해 또래관계(종속변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첫 단계에서는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관계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또래관계에 대한 부부갈등의 설명력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3>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한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모델1		모델2	
	B	β	B	β
부부갈등	-.30	-.25***	-.17	-.14
아버지에 대한 애착			.26	.20*
R ²	.06		.09	
F	-.25***		9.56***	
부부갈등	-.30	-.25***	-.14	-.11
어머니에 대한 애착			.38	.27**
R ²	.06		.11	
F	-.25***		12.68***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청소년의 친구의 기능에 대한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모델1		모델2	
	B	β	B	β
부부갈등	-.22	-.17*	.04	-.03
아버지에 대한 애착			.37	.27**
R ²		.03		.09
F		6.06*		9.10***
부부갈등	-.22	-.17*	.05	-.04
어머니에 대한 애착			.40	.28**
R ²		.03		.09
F		6.06*		9.32***

*p <.05 **p <.01 ***p <.001

1)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정관계의 질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매개적 역할

부부갈등과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부부갈등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부부갈등과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부부갈등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등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설명력은 9%이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3%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설명력은 11%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5%로 나타났다(<표 3>).

부부갈등과 친구의 기능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부부갈등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부부갈등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 각각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부부갈등과 친구의 기능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부부갈등은 친구의 기능을 지각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친구의 기능에 대한 설명력은 9%이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친구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6%이었다. 이러한 설명력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표 4>).

2)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매개적 역할

부부갈등과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은 또래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부갈등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그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부부갈등과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부부갈등은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설명력은 17%이었으며,

<표 5>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모델1		모델2	
	B	β	B	β
부부갈등	-.24	-.30***	-.11	-.14
아버지에 대한 애착			.28	.32***
R ²		.10		.17
F		20.37**		20.46***
부부갈등	-.24	-.30***	-.13	-.16*
어머니에 대한 애착			.28	.30***
R ²		.10		.23
F		20.37***		60.85***

*p <.05 **p <.01 ***p <.001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7%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갈등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또래애착에 대한 영향력은 부부갈등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감소되었다($\beta = -.30$, $p < .001$ 에서 $\beta = -.16$, $p < .05$). 즉,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부부갈등과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부부갈등은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설명력은 23%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13%로 나타났다(<표 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우정관계의 질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낮고, 친구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관계는 아동의 우정관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Feldman & Wentzel, 1995)와 일맥상통한다. 부부갈등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녀는 부모의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될 경우 부모 양자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모델링하게 된다(Grych & Fincham, 1990; Davis & Cumming, 1994). 아동은 이러한 행동을 또래와의 이원적인 관계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우정관계의 질이 나빠질 수 있을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친구의 기능보다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과 더 높은 관련을 나타냈다. 이는 부부갈등이 우정관계 중에서 정서적 측면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갈등상황에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이 우정관계에서도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친구에 대한 감정이 우선되어 이것이 친구가 사회·정서적 또는 수단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지를 의미하는 친구의 기능을 인지하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친구에 대한 기능보다 친구에 대한 감정과 더 관련이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부부갈등은 또한 또래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은 불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불안이나 위축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들(Holden & Ritchie, 1991; 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에 근거해 볼 때, 부부갈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또래에 대한 애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이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Cummings et al., 1985; Emery & O'Leary, 1984; Gottman & Katz, 1989; Grych & Fincham, 1990; Ladd, 1992; Long et al., 1987; Parke & Ladd, 1992)을 지지한다. Parke와 Ladd(1992)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부부갈등이 자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또래관계에서도 적용되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낮아지고, 친구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낮은 또래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의 증가로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은 또한 우울이나 위축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도 유발하므로(Holden & Ritchie, 1991; Johnston et al., 1987; Long et al., 1988; Peterson & Zill, 1986), 이러한 문제를 지닌 청소년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높고, 친구가 사회·정서적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고, 친구가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며 사회·정서적 또는 수단적 요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지각하고,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또래애착과 비슷한 정도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도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Ainsworth, 1973; Bowlby, 1969; Cohn, 1990; Cohn et al., 1991; Parke, MacDonald, Burks, Carson, Bhavnagri, Barth, & Beitel, 1989; Sroufe & Fleeson, 1986; Youniss & Smollar, 1985)을 지지하며,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ekovic & Janssens, 1992)와 맥을 같이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지각한 전청소년기(preadolescence) 아동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Kern et al., 1996)와도 일치한다. 이는 Bowlby(1969, 1973)가 애착이론에서 밝혔듯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대인관계의 지침이 되는 내적 작업모형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 작업모형을 통해 또래와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불안

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또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또래에게 표출하게 됨으로써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애착 각각이 아동의 또래관계와 서로 다른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더 높은 관련을 보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우정관계의 질과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uess와 동료들(1992)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혔듯이, 어머니의 애착이 유아의 또래관계를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우정관계의 질간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관련정도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가 바뀌었다고 해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자녀 양육은 어머니가 책임지고 아버지는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속하는 시기에 아버지의 경우, 직업에 있어서 전성기라고 할 만큼 직업활동이 활발하여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머니보다는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모간의 차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특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절반이상(53.5 %)이 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대상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통해 대인관계를 주로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이원적인 관계는 곧 우정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약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전반적으로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또래관계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부부갈등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불안정적이었다. 이는 부부갈등이 부모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애착 모두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기존 연구들(Farber et al., 1990; Farber & Long, 1991; Vincent et

al., 1991)을 지지하고, 부부관계가 긴장되어 있을 때 부모-자녀 관계는 덜 가까워지며 갈등이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들(Brody et al., 1986; Goldberg & Easterbrooks, 1984; Jouriles et al., 1988; Peterson & Zill, 1986)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고(정화용, 2000), 부모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부모에 대해 실망하게 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애착도 불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부부갈등이 거부적·방임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Davis & Cummings, 1994)에서 보듯이, 부부갈등이 심하면 부부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녀와의 관계로 전이되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안정적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유발시킬 것이다.

한편, 부부갈등에 의해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야기된다는 선행연구결과들(Fauber et al., 1990; Farber & Long, 1991; Vincent et al., 1991)과 부부갈등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Farber et al., 1990; Farber & Long, 1991; Vincent et al., 1991),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또래관계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Kern et al., 1996)에 근거하여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은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부부갈등과 친구의 기능간의 관계에서도,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친구의 기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우정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또한 부부갈등과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은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부부갈등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부부갈등은 또래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애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여, 또래관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부갈등과 자녀의 적응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Tschann et al., 1989)를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증가하게 되고, 부모 역시 자신들의 감정에 몰두하게 되므로 부모 역할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부족은 결국 부모에 대한 불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야기하여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갈등 자체보다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래 관계를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모두와 관련시켜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이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부갈등이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함께 살펴보고,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우정관계의 질과 또래애착을 함께 고려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하류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표본의 동질성으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김혜경, 1987), 부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증가하고(조영란, 1993), 부모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원지영, 1998)에서 볼 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의 측정에서 자기보고만을 이용하여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됨으로써 변인간의 관계가 다소 과장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나 제 3자에 의한 측정을 병행함으로써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을 빈도와 강도만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부부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지 못했다. 부부갈등이 디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만큼 부부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의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시켜 여러 발달단계에서의 또래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좀더 세분하여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관계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혼가정의 자녀

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와 더불어, 나아가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접 수 일 : 2002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0월 10일

【참 고 문 헌】

- 김혜경(1987).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희(2001).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지영(1998).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해·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1.
- 이향선(1999).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수도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훈(2000). 초기 청소년의 친구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지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2000).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관련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화용(2000).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란(1993).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McCauley, E., &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 (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Ainsworth, M.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Caldwell, B. M. & Ricciuti, H. 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pp. 1-9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 (1989). Some considerations regarding theory and assessment relevant to attachments beyond infancy. In Greenberg, M. T., Cichetti, D. & Cummings, E. M.(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463-48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lby, J. (1969,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ody, G. H., Pillegrini, A. D., & Sigel, I. E. (1986). Marital quality and mother-child and father-child interactions with 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91-296.
- Brown, B. B. (1990). Peer group and peer cultures. In Feldman, S. S. & Elliott, G. R.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ment adolescent* (pp. 171-19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ollins, W. A. (1988). Research o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Continuity in the stud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Gunnar, M. R. & Collins, W. A. (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1.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pp. 1-15). Hillsdale, NJ: Erlbaum.
- Crockenberg, S. & Forgays, D. K. (1996).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understanding and emotional reactions to marital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 22-47.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 (1984). *Being Adolescence: Conflict and growth in the teenage years*. New York: Basic Books.
- Cummings, E. M., Iannotti, R. J., & Zahn-Waxler, C. (1985). The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5-507.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Parke, R. D. & Ladd, G. W.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mery, R. E. (1982). Internation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 E. (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Farber, R. L., & Long, L. (1991). Children in context: the role of the family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13-820.
- Faubert, R., Forehand, R., Thomas, A.,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eldman, S. S., Wentzel, K. R. (1995). Relations of marital satisfaction to peer outcomes in adolescent boy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220-237.
- Feldman, S. S., Nash, S. C., & Aschenbrenner, B. G. (1983) Antecedents of fathering. *Child Development*, 54, 1628-1638.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6, 393-400.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 (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Gottman, J. M., & Katz, L. (1989). Effect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Development Psychology*, 29, 611-621.
- Hartup, W. W. (1993).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ill, J. P. (1980). The Family. In Johnston, M. (Ed.), *Toward adolescence: The middle school years*. Seventy-ninth yearbook or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pp. 32-5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Johnson, S. M., & Lobitz, G. K. (1974). The personal and marital adjustment of parents as related to observed child deviance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 193-207.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E. (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497-509.
- Jones-Leonard, D. (1985). *Perceptual Bias as a Possible Mecha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enver.
- Jouriles, E. N., Pfiffner, L. J., & O'Leary, S. G. (1988). Marital conflict, parenting, and toddl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197-206.
- Kerns, K. A.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friendship quality: Links to child-mother attachment. In Bukowski, A., Newcomb, F. & Hartup, W. W.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37-15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rn, L. R., Klepac, L., & Cole, A. K.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Ladd, G. W. (1992). Themes and theories: Perspectives on proces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Parke, R. D. & Ladd, W.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3-3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Laird, R. D.,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1999). Best friendships, group relationships,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413-437.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Parke, R. D., & Ladd, G. W. (1992). *Family-peer Relation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 Parke, R., MacDonald, K., Burks, V. M., Carson, J. L. Bhavnagri, N. Barth, J. M., & Beitel, A. (1989). Family and peer system: In search of linkages. In Kreppner, K. & Lerner, R. M (Eds.), *Family Systems and Life Span Development* (pp. 65-92). Hillsdale, NJ: Erlbaum.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89-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we, D. C. (1984).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s on behavioral development. In Encler, N. S. & J. McVicker, H. (Eds.), *Personality and the Behavior Disorders Vol. I* (pp. 479-510). New York: Wiley.
- Ruehlman, L. S., West, S. G., & Pasahow, R. J. (1985). Depression and evaluative schemata. *Journal of Personality, 53*, 46-68.
- Slater, E. J., & Haber, J. D. (1984). Adolescent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as a function of family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920-921.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Belsky, J. & Nezworski, T.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18-38).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Hartup, W. W. & Rubin, Z.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7-71). Hillsdale, NJ: Erlbaum.
- Suess, G. J., Grossman, K. E., & Sroufe, L. A. (1992). Effects of infant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on quality of adaption to preschool: from dyadic to individual organization of the self. *Internatio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43-65.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schann, J. M., Johnston, J. R., Kline, M., & Wallerstein, J. S. (1989). Family process and children's functioning during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31-444.
- Vincent, J. P., Harris, G. E., & Plog, A. (1991).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role of interparental conflict, marital affect and parenting. In Vincent, J.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Vol. 5. (pp. 47-68). London: Jessica Kingsley.
- Wolfe, D. A. (1985). Child-abusive parents: an empirical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7*, 462-482.
- Youngblade, L. M., Park, K. A., & Belsky, J. (1993). Measurement of young children's close friendship: A comparison of two independence assessment syst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attachment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6*, 563-607.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